광주대학교
GWANGJU UNIVERSITY

▶광주대 캐릭터 라이티='라이티'는 광주대학교를 나타내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상징물로 광주와 광주대학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빛'과 학교 고유 상징인 '사자'를 형상화했다. 갈기와 눈썹, 꼬리에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밝게 비추고 배에는 광주대학교 로고인 무등산을 담았다.

미래인재 양성…지역과 성장하는 혁신대학

취업·창업중심 교육…학생성공 담은 5대 전략 추진
신입생 100% 수시 선발…최대 3회 복수 지원 가능
학업장려장학금·복지장학금 등 모든 신입생에 혜택

김동진 총장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지역 최고의 취업·창업중심 교육명문대학으로 성장한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캐릭터를 선보였다. 대학 비전과 추진 전력을 재정비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대학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김동진 총장은 '미래를 품은 당신의 빛'(We Light fou You)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혁신과 학생지원, 건강경영, 지역상생, 미래기술을 담은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LINC 3.0 사업 등의 다양한 정부 부처 사업을 통해 현장실습과 특강, 자격증 및 동아리반 운영, 글로벌 해외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공으로 이끄는 대학…체계적 취업시스템

광주대의 체계적인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광주시 등과 협업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기업체 추천 및 진로 정보 등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성공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책임지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VIPS)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대 호심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VIPS는 공통역량과 진로설계(V), 자기계발(I), 실무능력(P), 취업지원(S) 등 5단계로 로드맵을 구축해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이다. 취업 전담 교수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학생들을 지도한다. 전공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자기탐색 검사, 진로지도특강, 모의면접, 현장실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학부(과) 맞춤형 학생지원 '행복지수 UP'

광주대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담 지도교수가 지정된다. 다양한 진로 및 취업, 개인 상담 등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지원한다.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해 졸업 후에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돕는다.

특히 광주대는 교수와 선후배가 소소한 학교생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진 총장을 비롯해 모든 구성원이, 멋진 사회인이 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캠퍼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신입생 학업장려금 등 장학혜택 제공

광주대는 신입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에게 70만 원, 충원합격자에게는 40만 원의 학업장려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수능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호심매원특별장학금도 운영한다. 호심매원특별장학금은 수능 4개 영역 평균 1등급일 경우 4년간 등록금 면제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선발 시 1회 전액 지원, 학업장려장학금 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체 지원자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수능 6등급(단, 간호학과는 4등급)까지 장학금 및 학업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에게는 소득분위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신입생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질 높은 장학제도를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학교 정문

신입생 1407명 모집

광주대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에서 총 1407명(정원내 1334명·정원외 73명) 전원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 941명 ▲지역학생전형 393명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전형(정원외) 73명이며, 각 전형별 1회씩 총 3회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70%와 면접고사 30%가 반영되며 스포츠과학부·사진영상드론학과·항공서비스학과는 학생부 60%, 면접고사 40%가 반영된다. 나머지 2개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 요소별 반영 비율은 교과성적 90%, 출결 성적 10%이다.

학생부 등급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6개 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하며, 반영과목의 이수 단위 합이 80 이상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진로 선택과목은 6개 교과 중 우수한 3개 과목의 성취도에 따라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면접고사일은 10월 28일(간호학과는 28일과 29일)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실시 여부를 결정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면접고사는 지원동기 및 학업 계획, 가치관 등을 확인하는 인성·구술면접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면접고사 약 2주일 전 평가항목별 예상 질문을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수능 4개 영역(국어·영어·수학·탐구1 과목) 중 우수한 2개 영역 평균 5등급 이내(합 10등급 이내)이며, 일반학생전형에서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만 적용한다.

전남도교육청 '혁신학교 넘어 미래학교로'

혁신학교 폐지 아닌 학교자치 실현 위한 발전적 계승

전남교육청이 민선 4기 발전과제 첫 번째로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기존 혁신학교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전남의 모든 학교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혁신학교의 성과가 혁신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 스며들어 학교 운영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민선 4기에는 더 이상의 공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이를 더욱 확산하고 발전시켜 민주적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학교자치와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혁신학교의 철학과 중점과제들이 학교혁신 일반화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 정책 전반과 모든 학교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현재 지정·운영 중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 유지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키로 했다.

또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 ▲AI(인공지능) 교육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민주(세계)시민교육 ▲무학년 주제 탐구 활동 ▲독서 기반 토론 교육 ▲삶 연계 마을교육과정 ▲지역 연계 진로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를 학교가 스스로 발굴해 제시하고 실천하며, 미래학교의 모형으로서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혁신 가치 확산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증액과 자율사업 선택제 확대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 배움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도심과 농어촌 작은 학교 정책들을 강화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행복한 작은 학교, 지역과 상생하는 작은 학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2년의 학교혁신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을 중심에 두는 학교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4기는 이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교자치와 소통·협력·연대의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구체화시켜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365 스터디룸' 조성 추진

내년까지 고교 37곳…개인별 학습·정보검색 공간 등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의 맞춤형 개별학습 및 모둠학습이 가능한 학생 눈높이 공부방 '365 스터디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24개교, 2023년 13개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365 스터디룸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인별 학습공간 ▲팀별 토의·토론 학습공간 ▲정보검색 공간 ▲무료 와이파이 환경 등이 구축된다.

스터디룸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천해가는 학생자치를 통해 운영규칙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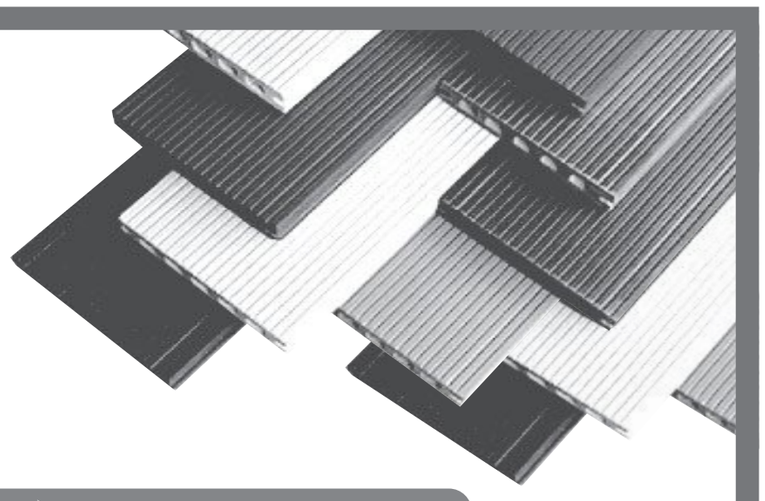
시 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창의적 회의, 교류, 휴식, 소통을 위해 '학교 교직원 쉼공간(다온뜨락)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노후한 교무실 공간을 재구성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한다.

시교육청 오근배 교육시설 과장은 "사회적 변화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하겠다"며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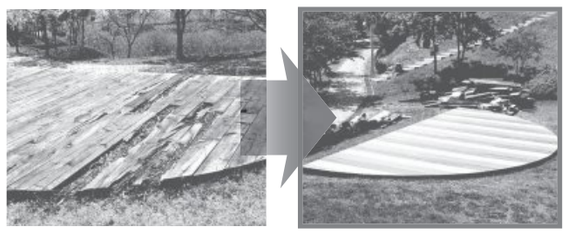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